

지역 소식통

고창농촌개발대학, 178명 신입생 새로운 출발

고창군이 지난 11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개발대학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열었다. 코로나로 인해 입학식을 생략하는 대신 이날 총 5개과정을 2차로 나눠 과정별 교육일정 설명과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고창농촌개발대학 교육은 정규과정(년 20회)과 특별과정(년 10회)의 2개분야 5개과정으로서 지역전략 특화작목 중심 전문이론 및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정규과정으로 ▲저탄소쌀과(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40명) ▲인삼브랜드과(고창 인삼의 브랜드화 및 품질향상, 20명) ▲북부자과(70명, 고품질 북부자 생산 및 가공산업 활성화가 개설했다.

또 특별과정으로 ▲토종농산물과(토종쌀·보존 육성, 22명) ▲높을고창멜론과(명품멜론 재배기술 연구, 20명)가 운영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 제11대 한상용 회장 취임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 제10대, 제11대 지부장 이취임식이 지난 11일 고창 유교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10대 박미애 지부장의 이임사와 공로패 전달, 제11대 한상용 지부장 취임사 그리고 추사와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한상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0대 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를 이끌어 오신 박미애 지부장과 임원진, 회원님들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헌신적으로 운영하여 예향의 고창 고창의 명성을 드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한상용 회장은 한국미술협회 심사위원 및 동백서화전 · 한국미술제 · 한국예술제 ·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 대한민국 기묘미술대전의 초대작가 활동하며, 전북대학교 총장상(2012), 국무총리상(2012), 등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앞장서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인구감소 대응 전략 수립

정읍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 방안 마련 총력 대응

정읍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인구감소를 위한 재원이다.

올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대 120억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2023년에는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투자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를 분석하고, 일자리·경제와 출산·보육, 주거 여건 등 분야별 사업을 발굴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인구 활력 증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재용 부시장을 단



정읍시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 간 협업 회의를 열고 공공시설물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유진섭 시장과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해 성장전략실장 등 6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소모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가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청년창업지움과 단풍마인한우 홍보관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정읍의 고유성, 창의성, 차별성 등을 부각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 간 협업 회의를 열고 공공시설물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유진섭 시장과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해 성장전략실장 등 6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소모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가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청년창업지움과 단풍마인한우 홍보관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정읍의 고유성, 창의성, 차별성 등을 부각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노후차량 조기폐차 · LPG 화물차 구입 지원사업

부안군, 미세먼지 감축 · 대기환경 개선 위해

부안군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기간은 16~25일,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16~21일까지로 부안군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한다.

부안군은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2,749대, LPG 1톤 화물차 신

차 구입 30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하였다.

또한 2022년도에는 보급물량은 크게 확대하여 조기폐차 8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25대에 총 13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건설기계는 최고 4천만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는

200만원을 정액지원 한다고 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실이 없는 차량 중 5등급 경유차량이며, 선정기준은 선착순 접수가 아닌,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규제정책이 대폭 강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화재 취약지역 소화전 설치 '골든타임 확보'

정읍시가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지역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소화전 설치사업은 소화전이 미설치되어 소방 용수 부족에 따른 화재진압의 취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중심의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춰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화전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과 화재진압 활동 시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을 위해 필수적이다.

시는 지난해 1억2,300만원으로 소화전 보급이 필요한 33개소에 설치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해 60개의 농촌 마을에 순차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해 화재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소화전의 고장 또는 파손된 소화전에 대해서도 즉각 보수·교체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



화재 확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14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읍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부안읍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생동하는 부안, 새로운 부안

부안읍 2022년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화 성료

부안읍은 14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읍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부안읍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생생소통 대화는 부안읍이장단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방역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의 장학금 기탁식으로 시작해 읍정 주요 업무 보고 및 군정 비전공유가 진행되었다.

비전공유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터미널 신축 사업, 부안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완공 등 2022년 변화된 부안의 모습과 군정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생생소통대화에

서는 읍민들이 평소 군정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생생소통대화 시간을 가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현장행정으로 동중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주민행복사업장 등 6개소를 방문하여 부안읍 주민과의 친숙한 생생소통 대화를 나누고 마무리 하였다.

김남철 부안읍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운 시기에도 참석해주신 읍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 일인년은 생동하는 부안, 새로운 부안을 만드는데 부안읍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진섭 시장 간부회의 주제, 산불 방지 만전 주문

유진섭 시장이 14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방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유 시장은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산불 방지 운영계획과 초등 진화 체계 구축 계획을 철저히 세워 달라"고 말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산림청·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이장 회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겨우내 버려진 무단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읍전과 소화전, 도로 등을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새봄의 기운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기업 등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샘고을시장과 신대인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상인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개장연도와 역사, 안내도 등을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